



에너지스토리지(ESS)산업 발전 전략 본격 추진

- ‘에너지스토리지(ESS) 산업발전 협의회’를 통해 과제 이행·점검, 추가과제 발굴

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보완 및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마련된 에너지스토리지(ESS)발전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.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방문규)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1.24 오전 석탄 회관에서 “제1차 에너지스토리지(ESS) 산업발전 협의회”를 개최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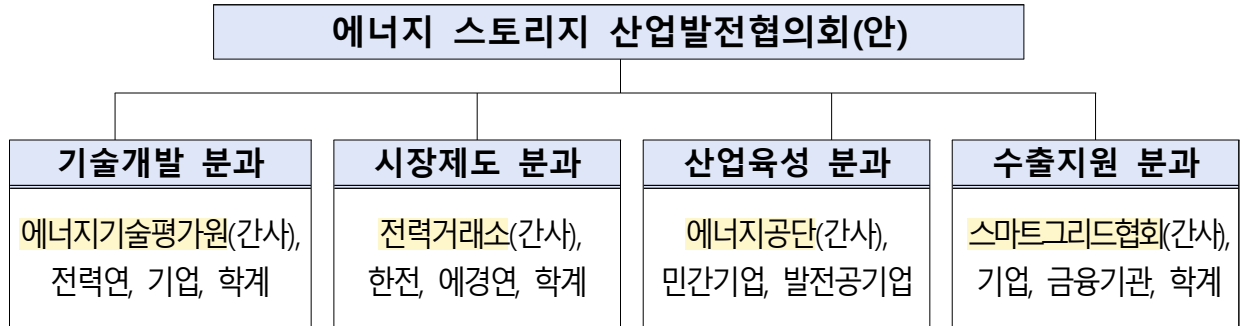
협의회는 기술개발, 시장제도, 산업육성, 수출지원 등 4개 분과로 구성되고 각 분야 산·학·연 전문가, 에너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유연한 전력시스템 구현과 ‘36년 세계 에너지스토리지(ESS) 시장 점유율 35% 목표로 지난 10월 발표한 “에너지스토리지(ESS) 산업 발전 전략”에서 제시한 과제 이행과 추진실적 점검은 물론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.

이날 회의에서 기술개발 분과(간사: 에너지기술평가원)는 기술성숙도 수준·상용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에너지스토리지(ESS) 기술개발 방안, 시장제도분과(간사: 전력거래소)는 에너지스토리지(ESS)의 전력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, 산업육성분과(간사: 한국에너지공단)는 에너지스토리지(ESS) 보급 확대·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에너지스토리지(ESS)기반 신산업 육성 방안, 수출지원분과(간사: 스마트그리드협회)는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,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각각 발표하였다.

이 실장은 “재생에너지·원전 등 경직성 전원 증가에 따른 전원믹스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전력망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리튬전지 에너지스토리지(ESS) 뿐만 아니라 흐름전지·양수 등 다양한 저장매체를 활용한 최적의 스토리지믹스 구현이 무엇보다 중요”하다고 강조하며, 에너지스토리지(ESS)산업 발전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협의회와 활발한 활동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전력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	책임자	과 장	박상희 (044-203-3920)
		담당자	사무관	장 원 (044-203-3923)

1. ESS산업발전 협의회 구성



2. 에너지스토리산업 발전전략 주요 내용

□ '36년까지 글로벌 ESS 시장 35% 점유를 위해 5대 전략 추진

① 장기 스토리지 믹스(제10차 전기본에서'36년까지 총 26.3GW 제시) 최적화

- '30년 이후 ESS 필요량을 '25년부터 선제적으로 확보하고,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호남권은 26년까지 ESS 1.4GW를 우선 조달

② 시장 참여 활성화 및 보급 확대

- 저탄소 중양계약시장, 재생e 입찰시장, 저장전기판매사업 등 시장 확대
- 사용후배터리 재사용시장 창출을 위한 검사·인증 제도 정비

③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ESS 기술개발

- 삼원계 리튬전지 기술고도화, 인산철 리튬전지 품질향상
- 양수발전 주요 기기 국산화, 흐름전지·NaS전지 등 대용량장주기 기술 조기 시장 진입 유도 및 압축공기저장, 열저장 장치 기술개발 및 실증

④ 산업기반 조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

- 에너지스토리지 산업발전 추진주체로 「스토리지 산업발전협의회」 구성
- 공적 금융기관, 녹색채권, ODA 등을 활용한 수출 및 해외 진출 활성화

⑤ 안전관리 체계 강화 : 안전관리 제도 개선,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및 활용